

근세이후 여성복식에 나타난 세기말 현상에 관한 연구

배 수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Costumes in the Ends of Centuries

Soo-Jeong Ba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

Abstract

In a turn of a century, the skepticism, mysticism and eroticism used to prevail, the people becoming anxious, expectative and doubtful about an oncoming age. The costumes tend to become more exciting and erotic in the fashion.

This thesis is on understanding "What would 21 century's clothes be?" after analyzing the specific points in an end of the century. The characteristics found from 16th century to 20th century are going to the extremes in the shapes, consistent appearance of bustle style costumes and excessive ornaments which are closely interrelated with one another.

I expect the fashion in 21st century would be changed in two ways. Firstly, going to the extremes and stressing on the buttock would be going down in the end of 1999. Secondly, the comfortable clothes highest in function and technology, and also friendly to the environment, might be the main stream, rather than outwardly good looking clothes, because spirit and environment is much more emphasized than the mode by the social impact or pressure in the next era. (*Korean J Human Ecology* 2(1):114~128, 1999)

KEY WORDS : bustle style, end of century, skepticism, mysticism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
300 Yongbong-dong, Puk-gu, K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1346, Fax : 062-530-1349
E-mail : sjbae@chonnam.ac.kr

I. 서론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 1844-1924)가 백년 후에 다시 태어난다면 가장 먼저 패션 잡지를 읽겠다고 단언한 것처럼 복식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Black, 1997)

복식 변화의 주요 흐름은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서, 어떤 한 개인이 선호했던 것에 일반인들이 모방하고 싶은 정도의 강력한 매력을 느낌으로서, 혹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졌다. 특히 세기말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상황은 복식을 변화시킬 만큼의 강한 요인이 되었고 각 세기말마다 특징적인 복식현상이 나타났다.

세기말의 일반적인 현상은 다가올 새로운 세기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자신들이 살았던 세기에 대한 회의 및 향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종말론, 회의론, 신비주의(이예영, 1999) 등이 기승을 부리거나 향락주의와 에로티시즘이 번창(허준, 1987)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대중들은 좀 더 자극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됨으로서 복식이 변화하게 되고 이것이 세기말에 가까이 갈수록 극대화되어지는 현상이 복식 역사상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는 새로운 천년을 몇 개월 앞둔 상황으로, 정치적으로는 세계 중심구도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으로는 80년대의 버블경제의 붕괴에 이어 나타난 아시아권의 경제 침체, 사회적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극심한 식량문제와 지하자원의 고갈문제, 급속한 과학의 발달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환경문제, 종족간의 갈등 혹은 권력 구조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 및 대량학살 등이 현대인들에게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현실에의 불안감, 다음 세기에의 기대감 등은 문화, 예술 전반 및 복식에 까지도 영향을 미쳐 왔고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 세기말 복식에 나타난 특징을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천년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21세기의 패션 예측에 도움이 되고자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근세 이후부터 현대까지 복식에 나타난 세기말 현상을 고찰, 분석하여 이의 특성들을 파악함으로써, 과거의 복식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세기말 현상들을 21세기의 패션 예측에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연구 범위를 근세이후부터로 설정한 것은, 근세 이전에는 하나의 스타일이 수 세기동안 착용되어 세기별 복식의 특징이 명확하지 않고 뚜렷한 세기말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기말 현상이 복식에 나타나기 시작한 근세이후부터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복식사 적인 측면은 주로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고 현대패션 측면은 인터넷, 패션관련 정기간행물 및 잡지, 비디오 등의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16세기부터 현재 20세기말까지의 세기말 복식의 경향을 살펴본 후 세기말 복식의 특징을 종합하여 분석한 다음 이를 근거로 21세기의 복식변화를 예측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II. 세기말 복식의 경향

1. 16세기말의 복식

16세기에는 14, 15세기의 중심국가였던 이태리에서 스페인, 프랑스, 영국으로 그 주도권이 바뀌었다. 특히 16세기말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엘리자베스 1세(1588-1603) 통치하의 영국이었다. 이 시기는 사상적으로는 인본주의의 수용과 함께 종교개혁이 르네상스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쳐, 국제간의 해상무역으로 축적한 새로운 부를 인간을 위해서 소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직조공, 수놓는 장인, 금세공인들이 복식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비잔틴 시대를 제외하고는 역사상 가장 보석을 풍족하게 사용한 시기가 되었다. 또한 16세기는 유럽에서 통신수단과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복식이 국제화되었고, 이로 인해 어떤 특정한 나라의 복식이 유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당시 유럽 국가의 복식에는 구별하기 어려운 유사점이 많이 나타났다.(Payne, 1965)

블랑쉬 페인에 의하면 1580년까지만 해도 유럽의 여성 복식은 그다지 과장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1580년 이후부터는 이전부터 나타났던 파격적인 비례가 더욱 과장되고 심해졌다. 프랑스, 영국 등에서 A자 형의 스페인식 파딩게일은 드립형인 프랑스식 파딩게일로 바뀌었다. 이 드립형 프랑스식 파딩게일은 메디치 가의 카트린(Catherine)의 딸이자 프랑스의 앙리 4세의 부인인

마르게리트(Marguerite of Valois)가 그녀의 작은 엉덩이를 감추기 위해 소개한 것이다.(Payne, 1965) 이 과도한 형태는 16세기말에 극단적으로 커진 러프 칼라 및 거대한 패드를 넣은 레그 오브 머튼 소매와 기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16세기말을 특징짓는 실루엣이 되었다.

1588년에 그려졌다고 추정되는 그림 1의 '무적 함대에 승선한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The Armada Portrait)'를 보면,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것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초상화이기 때문에 여왕의 복장이 패드를 많이 넣은 과장된 모습이다. 더욱이 16세기의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1세는 아버지인 헨리 8세의 과시욕을 물려받아, 그녀의 의상들은 그녀를 궁정의 남자들 보다 더욱 훌륭하고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어야 했다.(Boucher, 1965) 정교한 러프 칼라의 앞부분은 여전히 닫혀있지만, 이전보다도 더욱 얇고 섬세하며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복식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바디스의 끝은 뾰족하며 손목에는 작은 러프와 레이스로 만들어진 컵프스가 장식되었다. 진주와 나비매듭, 장식끈 등의 정교한 세부장식들은 모두 좌우 대칭 구조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배치되었다.

이 시기의 코르셋은 허리부분이 들출한 예리한 철물 구조로서 앞 허리선이 바늘같이 뾰족한 형태였다. 그림 2의 헨리 3세 궁정에서의 무도회 장면에서 나타난 복식들을 보면 허리선이 극단적으로 가늘면서 동시에 아랫배 부분을 앞쪽으로 내밀고 있는 기묘한 자세를 볼 수 있다. 이는 극단적인 형태의 의상 착용으로 인한 자세의 변화로 파악된다. 또한 패드와 고래힘줄을 넣어 한껏 부풀린 레그 오브 머튼 소매는 드림형 스커트의 넓이에 비례하고 있다.

16세기말 스페인 의상의 전형적인 형태는 그림 3의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 클라라 에우게니아(Isabella Clara Eugenia)와 그녀의 난쟁이 친구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다. 여왕의 러프는 귀를 덮을 정도로 높고 바디스는 상체를 매우 잘 감싸고 있으며 허리선은 약간 내려오기는 했으나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낮지는 않다. 스커트는 전형적인 스페인의 원추형이고 이중소매의 처리가 특징적이다. 스페인 복식의 경우는 극단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지만 과도한 표면장식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16세기말의 복식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점들은, 첫째

스페인 식의 원추형 파당계일이 프랑스 식 드림형 파당계일로 대체되었다는 점, 둘째 어깨를 커다랗게 부풀린 레그 오브 머튼 소매가 유행되었다는 점, 셋째 러프 칼라가 어깨넓이까지 커져서 마침내는 버팁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 넷째 허리선이 매우 낮아지고 허리를 과도하게 조임으로서 인체의 자세가 변화한 점, 다섯째 보석을 이용한 과도한 표면장식 등, 스커트, 소매, 바디스, 러프 등 복식의 모든 부분이 더 이상 커지거나 작아질 수 없을 만큼 극단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이상화했던 르네상스 예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것이 세기말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조우하면서 복식에 관능적인 미의 표현으로 인간의 육체미를 변형시킨 극단적인 실루엣(김옥진, 정명선, 1986)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복식은 이러한 극단적인 경향이 점차 줄어들어 전체적인 실루엣이 자연스러워지고 허리선도 제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 러프 칼라도 어깨로 내려오는 등 변화하게 된다.

2. 17세기말의 복식

17세기는 유럽 전역이 정치적 긴장과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시기였다. 영국의 시민전쟁과 크롬웰에 의한 공화정 수립 그리고 폴란드의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으로 그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1660년 영국에 왕정이 복고되고 프랑스에는 성년이 된 태양왕 루이14세가 친정을 개시하면서 유럽의 복식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함을 되찾았다.(Black, 1997)

17세기말에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윤곽을 따르던 의상의 곡선들이 바뀌고 과장된 실루엣인 버슬(bustle, tournure)이 역사상 최초로 나타났다. 버슬은 스커트를 뒤에서 부풀리는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허리에 대는 도구로서 초기에는 고래수염이나 말총 또는 철사 등을 이용한 페티코트 형태였고 후기에는 독립용구가 고안되어 쿠션이나 철사틀 형태, 천으로 주름을 만든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버슬이 있었다.(구미지, 임원자, 1988) 변화의 과정은 그림 4.처럼 오버 스커트의 가장자리를 뒤로 고정시키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오버 스커트를 뒤로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브로치나 루프, 리본, 태슬 등이 중요한 장식요소가 되었다. 1680-90년대는 앞의 치마 단 끝을 뒤로 당겨서 장식적인 페티코트를 조금이라도 더 드

러나 보이게 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장식들이 고안되었다.(Ashelford, 1996) 전체적인 스커트의 형태는 그림 5.처럼 폭포와 같은 형태가 되었고 별다른 버팀대 없이 버슬 효과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정교하게 꾸민 옷차림을 하게 되면서, 스커트는 아주 길어져 뒷자락이 바닥에 끌리게 되었다(Black, 1997).

어깨와 소매산의 전체적인 형 또한 새로운 유행에 따라 바뀌게 되었는데, 소매통이 좁고 길어졌으며 소매에 여러 층의 리플을 달아 착용하였다(Payne, 1965). 이러한 스타일의 복식은 루이 14세의 애첩이었던 풍탕쥬 부인(Madame de Fontanges)이 유행시킨 풍탕쥬 헤어스타일(그림 4, 5참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오를레앙 공작부인(Madame, Duchesse D'Orléans)의 1687년의 기록에 의하면 7세 소녀에서부터 80세의 노부인에 이르기까지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없었다고 한다.(Waugh, 1968)

17세기말의 복식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버팀대를 사용하지 않은 버슬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안쪽에 착용한 화려한 페티코트를 드러내려고 오버 스커트를 엉덩이 뒤쪽으로 걸어들리면서 시작된 버슬은 리플을 장식한 소매, 루프, 리본, 태슬 등을 이용한 정교한 표면장식, 높다랗게 올린 풍탕쥬 헤어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면서 17세기말을 특징짓는 하나의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3. 18세기말의 복식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의복의 형식 및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 즉 극적이면서도 빠른 속도로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모든 복식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프랑스의 여성복식은 도덕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Black, 1997) 이때 영향을 받은 것은 영국의 복식으로, 영국은 산업혁명의 결과 직물 생산기술의 발전도상에 있었고 고대 그리스 복식에 대한 복고적인 경향이 시작되고 있었다.

1780년경부터는 거대했던 스커트 버팀대 파니에(panier)가 작은 사이즈로 축소됨에 따라 로브의 주름이 엉덩이 부분으로 옮겨지면서 버슬 스타일이 출현했다.(정홍숙, 1999) 혁명이전인 1785년경부터 나타난 버슬 스타일은

17세기말에 나타났던 버슬과는 달리 인공적인 패딩을 사용하였다. 여전히 오버 스커트의 앞자락을 벌려 페티코트가 드러나 보이게 했지만, 이제는 옷자락을 뒤로 올려 버슬 형태를 만드는 부자연스러운 일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버슬 형태를 만들기 위해 엉덩이에 대한 범롤(bum-roll 혹은 bum-pad)이나 풀을 세계 먹여 뺏뺏하게 만든 페티코트를 이용하였다.(Black, 1997)

버슬 스타일의 재등장에 대해 1782년 4월의 '레이디스 매거진(Ladies Magazine)'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프랑스의 여왕은 그녀를 알현하기 위해 나온 모든 부인들의 의상을 완전히 압도하는 화려한 모닝 드레스를 입고 베르사이유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것으로, 무늬 없는 새틴으로 제작되었으며 원통형이고 뒷자락이 길어 바닥에 끌린다. 또 앞쪽을 한쪽으로 끌어올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은슬이나 금슬 혹은 실크로 된 술장식으로 고정시킨다. 이렇게 하여 여러 가지 색깔의 얇은 사나 실크에 주름을 넣어 만든 페티코트가 보이게 한다." 이 새로운 스타일은 영국과 프랑스의 궁정에서 동시에 채택되었다.(Black, 1997)

바디스 역시 꼭 끼었으나 허리선이 한층 올라가 이전처럼 허리를 조이지 않았으며 폭 넓은 장식 띠를 묶었다. 이전에 비해 훨씬 날씬하면서도 실루엣이 뚜렷해져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되었다. 소매는 좁고 팔꿈치 정도의 길이였으며 약간의 프릴이 장식되었다. 그림 6.에서처럼 가능한 한 키를 커 보이게 하기 위해 위가 살짝 구부러진 길다란 깃털을 모자에 장식했으며, 완전히 발을 덮을 정도로 스커트 자락을 길게 늘어뜨렸다.

당시에는 초상화의 인물이 몸을 옆으로 돌려 뒷모습이 드러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버슬 형태를 드러내고자 함과 동시에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는 뒷면의 매력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 것이다.

또한 영국에서 도입된 패션으로, 단정하고 기능적으로 제작된 영국식 승마용 코트인 르덴고트(redingote)와 길이가 짧은 자켓인 카라코(caraco)는 남성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18세기말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와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구미지, 임원자, 1988) 이는 프랑스에서는 로브 아 라 카라코(Robe à la Caraco)와 르덴고트 가운(Redingote Gown)이 되었다. 그림 7.

은 버슬 스타일의 드레스와 함께 착용한 카라코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인물의 포즈가 약간 옆으로 비껴 서있어서 버슬의 볼륨 정도를 분명히 볼 수 있다.

18세기말의 복식에 나타난 특징적인 경향은 17세기와 마찬가지로 버슬이 압도적인 스타일이었다는 점이다. 단지 다른 점은 범롤이나 범패드라 불리는 버팀대를 사용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유행했다는 점이고, 공통점은 레이스, 리본, 꽃, 태슬을 이용한 정교한 표면장식을 버슬에 하였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버슬 스타일을 마지막으로 하여 근세복식은 막을 내리고 엠파이어 스타일의 근대복식으로 바뀌게 된다.

4. 19세기말의 복식

1860년대 후기에 세계 무역은 각지에서 열린 만국박람회 의해 크게 고무되었다. 세계 무역의 팽창과 날로 증가하는 신흥 중산계급의 부는 서로 상승 작용을 하며 무한한 번영의 시대를 창조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의 꿈은 1870년 9월에 발발한 프랑스와 러시아간의 보불전쟁으로 무참하게 깨지고 나폴레옹 3세의 왕비인 외제니 황후는 영국으로 도피하였다. 황후의 전속 의상제작자였던 워드(Charles Frederic Worth, 1825-95)의 의상실은 폐쇄되고 건물은 병원으로 사용되는 등 유럽의 상황은 변하고 있었다.(Black, 1997)

문학, 사상, 미술계는 19세기를 특징짓는 기계문명에 대한 불안과 회의가 깊어지고, 80년대 말경부터 '세기말'이라고 불리는 데카당스 시대로 들어간다. 퇴폐적 사상은 시민생활에도 침투해서 향락주의와 에로티시즘이 넘쳐흘렀다. 만국박람회와 함께 에펠탑이 파리에 그 위용을 드러낸 1889년은 '세기말'과 향락적인 '벨 에포크'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허준, 1987)

복식에 있어서 1870년까지의 스커트는 앞은 평평한데 비해 뒷모습은 허리에 대는 푸프(poufs)로 부풀려 볼록하였다. 푸프는 말총을 사용한 프릴이나 작은 안장 모양의 쿠션이었다. 이것은 크리놀린이 폐기되면서 스커트의 여유분을 뒤로 모으면서 시작되었는데(Waugh, 1995), 그림 8.처럼 스커트의 앞자락은 바닥에 닿고 뒷자락은 여전히 바닥에 깔렸다. 이는 17세기말의 버슬과 매우 유사한 착장 형태를 보여준다.

1870년대 버슬은 모양이나 구조면에서 아주 다양했

다. 크게 부풀린 것이 있는가 하면 약간 누그러뜨린 모양을 한 것도 있었다. 스커트는 그림 9.의 코로의 '푸른 옷을 입은 여인'처럼 돌출부분을 고리로 동여매 언더 스커트가 드러나 보이게 착용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 스커트를 무릎 뒤쪽으로 묶어 가늘고 직선적인 형태가 되기도 하였으나 걷기에 매우 불편하여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세기말이 가까워 올수록 버슬도 점차 커졌고, 여기에 소재가 다른 몇 가지 옷감을 사용하여 플리츠나 프릴 등의 표면장식을 과도하게 하였다.(Ashelford, 1996) 이 때문에 스커트가 무거워져 이를 지탱하기 위해 그림 10.과 같은 새로운 타입의 버팀대가 등장하였다. 이 버팀대는 뒤쪽만 있는 반원형이었기 때문에 허리에 묶을 수 있게 끈이 달려 있었다. 버팀대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당시의 패션 전문가였던 워드마저도 혐오감을 느꼈지만 이 그로테스크한 형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여성들이 방을 치장하는데 더 어울릴 것 같은 많은 양의 드레이프를 몸에 달고 다닌다고 해서 이런 스타일을 '업 홀스터드(upholstered)' 스타일이라고 불렀다(Black, 1980).

1885년 버슬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잇달아 신형 버슬이 고안되었는데 앉으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서면 자연히 내려간다는 '랑크토리 식'이 유행하였다.(허준, 1987) 그러나 1890년부터는 아르누보(Art Nouveau)의 영향으로 버슬의 크기와 표면장식이 줄어들면서 S자형의 아우어 글래스 실루엣이 우세해져 세기가 바뀌기 직전인 1899년 버슬은 완전히 사라졌다.(구미지, 임원자, 1988)

아르누보 운동이 활짝 꽃피기 시작한 1890년대가 되면서 유행은 변화된 미의식에 부응하여 크게 부풀었던 버슬의 심한 곡선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스커트 형태로 바뀌어 전체적으로 날씬한 실루엣을 이루었다. 이러한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는 드레스를 신체의 선에 꼭 맞게 구성해야 하므로 바디스를 타이트하게 재단했고 허리는 가늘게 조였으며 스커트는 고어드(gored) 방식으로 재단되었다. 그리하여 심하게 곡선을 이룬 가슴과 가는 허리, 돌출된 엉덩이 선, 플레어로 퍼진 스커트 등으로 구성된 아우어 글래스 실루엣이 창출되었다.(정홍숙, 1999) 이 실루엣은 1910년까지 착용되다가 새로운 예술사조인 아르데코(Art Deco)의 등장과 함께 현대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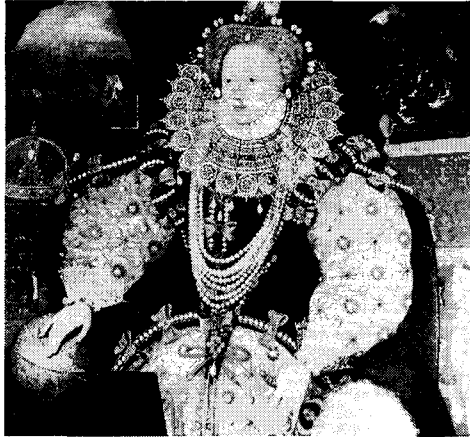


Fig. 1. The Armada Portrait, 1588



Fig. 3. The Infanta Isabella Clara Eugenia, 1584



Fig. 2. Evening ball for the wedding of the Duc de Joyeuse, 1581-2



Fig. 4. Mode bourgeoise, 1690



Fig. 5. Lady and gentleman walking, 1693



Fig. 6. Day dresses, 1796



Fig. 7. Fashion plate from Le Magasin des modes nouvelles, 1787



Fig. 8. Day dress, 1874







Fig. 9. Woman in Blue by Corot, 1874

**HEALTH BRAIDED WIRE
DRESS IMPROVERS.**

The eminent Physician, DR A. E. LONGSHORE, says: "If ladies will wear DRESS IMPROVERS, I advise them to confine themselves to those made by the American Braided Wire Company, as they are less heating to the spine than any others."

SOLD BY DRAPERS AND LADIES' GOUTIFIERS.

<p style="text-align: center;">Style Bow.</p>  <p style="text-align: center;">PATENT.</p> <p style="font-size: small;">The Bow Braided Wire Dress Improver is a kind of elasticated steel wire, with an adjusting strap to change its shape. It is light and of good quality.</p>	<p style="text-align: center;">Style Florence.</p>  <p style="text-align: center;">PATENT.</p> <p style="font-size: small;">The Florence Braided Wire Dress Improver is a kind of elasticated steel wire, with an adjusting strap to change its shape. It is light and of good quality.</p>
<p style="text-align: center;">Style Paris.</p>  <p style="text-align: center;">PATENT.</p> <p style="font-size: small;">The Paris Braided Wire Dress Improver is a kind of elasticated steel wire, with an adjusting strap to change its shape. It is light and of good quality.</p>	<p style="text-align: center;">Style Myra.</p>  <p style="text-align: center;">PATENT.</p> <p style="font-size: small;">The Myra Braided Wire Dress Improver is a kind of elasticated steel wire, with an adjusting strap to change its shape. It is light and of good quality.</p>

THESE GOODS ARE ALL PATENTED IN GREAT BRITAIN AND ON THE CONTINENT.
MADE ONLY BY
THE AMERICAN BRAIDED WIRE CO.,
64, CHURCH STREET, SHOREDITCH, LONDON, E.
WHOLESALE ONLY.

Fig. 10. Late 19th century bustles were designed in many different shapes

식으로 전환되었다.

19세기말의 복식에 나타난 두드러진 경향 역시 17세기, 18세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버슬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19세기의 버슬은 17세기와 18세기의 혼합형으로, 오버 스커트 자락을 엉덩이 뒤로 걸어올리면서 동시에 버팀대를 사용하여 형태 면에서 매우 과도한 버슬이었다. 여기에 플리츠나 프릴, 프린지, 리본 등 많은 표면장식까지 부가되어 부담스러운 스타일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1890년 이후부터는 아르누보운동의 영향으로 완만한 S자형의 아우어 글래스 실루엣이 등장하였다. 이 실루엣 역시 버슬만큼은 아니지만 엉덩이를 강조한 스타일로서, 당시로서는 가장 에로틱한 부분인 엉덩이를 강조하는 세기말적인 복식 현상의 하나로 해석된다.

III. 20세기말의 복식

1. 1980년대의 복식

20세기말에는 80년대의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파동과 버블 경제 붕괴에 따른 패션소비의욕의 침체기간을 겪으며 하이 패션의 부재와 하나의 트렌드가 계속되지 않고 어지러운 정도로 변화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는 세기말적 변화기 특유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은 마치 19세기말의 시대상황과 유사하여 세계정치구도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 버블 경제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인 위축과 다음 세기에의 기대감, 환경파괴에 따른 정신적인 긴장감 고조 등 정신과 물질이 분할되어 가치관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례, 1997)

1980년대 초는 70년대 스타일의 정체가 계속되어, 핑크가 약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Carnegy, 1990) 가죽 미니 스커트, 면도날 귀걸이, 단추, 사슬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이 도전적인 스타일에 대한 반발이 신낭만주의(Neoromanticism)라는 이름으로 런던에서 시작되어 전세계 디자이너들에게 채택되었다. (Bond, 1992)

신낭만주의는 1981년 2월 영국의 찰스(Charles) 왕세자와 다이아나(Diana Spencer)의 약혼식과 함께 나타난 패션 현상으로, 당시의 패션에는 드레스와 블라우스에서 니트 웨어까지 모든 스타일의 옷에 러플과 프릴, 리본

등이 장식되었다. 대표적인 스타일은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1981년에 발표된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파이어리트 룩(pirate look)'을 들 수 있다. 또한 왕세자비인 다이아나가 패션을 주도하는 인물이 되어 그녀가 착용한 복식은 세밀히 검토되고 평가받았으며 전세계적으로 자주 모방되었다. 그림 12.에 제시한 다이아나의 상아색 실크 테피터로 제작된 웨딩 드레스는 그 디자이너인 엠마누엘(David and Elizabeth Emanuel)을 영국 패션의 선두주자로 만들었고, 대중에게 긴 트레인, 퍼프 소매, 프릴이 얼마나 낭만적인가를 상기시켰다. 다이아나의 유명한 검정색 테피터로 만든 어깨끈이 없는 무도회 가운과 트위드로 만든 테일러드 슈트, 스키복, 임신복, 세일러 칼라와 로우 웨이스트 라인, 짧아진 치마 등 온통 신낭만주의 적인 다이아나의 스타일이 80년대 초를 지배했다. (Ewing, 1992)

80년대 중반 경 여성들의 의상은 더욱 여성스럽고 우아한 스타일이 되었다. 디자이너들은 그림 13.과 같은 넓은 어깨와 약간 짧은 스커트의 조합으로 전체적으로 역삼각형 실루엣을 제안하였다. 이 스타일은 화려한 새쉬나 가죽 벨트, 잘 만들어진 장갑, 모자와 모조 보석으로 제작된 악세사리와 함께 착용되었다. 많은 금속성의 이브닝 드레스, 몸에 잘 맞는 페플럼 자켓, 타이트한 니트 웨어 등이 대담한 색으로 표현되어 화려한 글래머의 시대가 되었다. 여성들은 다시 여성스럽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소재에 있어서도 레이스 처리된 실크나 아주 좋은 질감의 인조 새틴 등이 사용되었다. 50년대의 여성스러움보다 더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것을 강조한 보디컨셔스(body-conscious) 스타일이 지배적이었다. (Bond, 1992)

80년대 후반을 지배한 것은 과장된 패션이었다. 그림 14.에서처럼 부풀린 공모양의 버블 스커트, 더 짧아지고 몸에 맞는 자켓, 타이트한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 등이 말쑥한 모자 및 장갑과 함께 착용되어, 결과적으로 허리와 엉덩이가 더욱 강조되었다. 실제로 '87 S/S 자크 파두(Jacque Patou)의 컬렉션에서 수석 디자이너인 크리스찬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는 엉덩이를 강조한 버슬 스타일의 투피스를 발표하였다. (그림 15.참조) (Steele, 1997)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버슬 스타일은 과도한 버슬은 아닐지라도 패턴과 컷의 미묘한 테크닉이나 프릴,

러플, 드레이핑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강조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1990년대의 복식

90년대 패션은 하이테크 디자인에서부터 쓰레기 재활용, 수공예적 전통을 살린 디자인, 과거를 현재에 응용하는 복고풍,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사이버디자인,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시스루(see-through), 란제리 룩(lingerie look)까지 세기말 디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상례, 1997) 이 중에서도 80년대에 이어 90년대에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복고주의적 경향은 20세기말을 특징짓는 패션 테마로서 멀리는 수세기 전까지 짧게는 40년대의 밀리터리 룩, 50년대의 뉴-룩, 60년대의 잭키 케네디(Jackie Kennedy Onassis)스타일과 히피, 70년대의 모즈(mods) 등 수십년 전까지 과거로의 회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Ewing, 1992)

버슬 스타일이나 엉덩이를 강조한 스타일도 80년대에 이어 여전히 복고풍의 강세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체는 1994년과 95년 연속해서 버슬을 발표하였다. 그림 16.은 '94 S/S '에로틱 존'(Erotic Zones) 컬렉션에 발표된 버슬이고 그림 17.은 '95 A/W '비바라 코코테'(Vive la Cocotte) 컬렉션에 발표된 버슬이다. 두 컬렉션 모두 극단적으로 여성적인 실루엣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그림 17.의 빨강색 캐시미어 슈트 착용 시에는 그림 18.과 같은 19세기 풍의 버슬 받침대를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가슴에까지 패딩을 심하게 처리(Krell, 1997)하여 인체의 곡선을 극단화하고 있다.

1996년 지방시의 수석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그림 19.와 같은 엉덩이를 강조한 18세기 풍의 이브닝 드레스를 발표하였다. 또한 갈리아노는 크리스찬 디올사로 옮긴 후에도 여전히 강한 복고주의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20.은 '97 S/S 디올사 창립 50주년 기념 컬렉션에 발표된 연보라색 테피터 위에 레이스를 겹쳐 제작한 에드워드안(Edwardian) 스타일의 이브닝 드레스(McDowell, 1997)로, 버슬 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엉덩이가 강조된 스타일로서 갈리아노는 이를 아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물론 많은 디자이너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라인을 제시하고, 대중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패션은 변화해 왔다. 20세기말의 패션을 단지 몇 명의 디자이너 작품만으로 한정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기말의 특징적인 현상이 디자인에 반영된 디자이너의 작품만으로 제한하였고 여기에서 20세기말의 복식에 나타난 특징으로 인체 곡선의 극단화와 버슬 스타일의 재등장이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20세기말의 패션에 나타난 복고주의적인 경향은 1980년대 새로운 시대사조로 사회와 문화 전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이라고 분석하는데(정홍숙, 1999),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한 바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세기말적인 현상도 복고주의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18, 19세기말의 복식에 나타난 버슬 스타일 역시 17세기의 버슬 스타일의 복고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고 이 복고풍의 등장 시기가 항상 세기말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복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1세기의 복식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20세기말의 복식에서 추출된 두 가지 경향-극단화와 엉덩이 강조 현상-은 누그러들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세기말 복식이 그랬듯이 1999년을 고비로 극단적인 에티시즘의 표현이나 신체노출 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1세기에도 세기말에는 복고주의적인 경향이 복식에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의한 복식변화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대중들은 한동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열중할 것' 혹은 '도피할 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여가활동이 강화(Fashion Color, 1999)됨으로서 소비의 초점도 레저산업으로 옮겨가게 되고 복식에 있어서도 레저복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1세기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의 지표가 됨으로서 의류산업도 입을 수 있는 컴퓨터나 통신장비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林泉, 1999), 마지막으로 인류가 처한 최대의 과제인 '지구환경문제'가 더욱 직접적으로 생명환경의 유지 및 노령화와 함께 건강의 식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서 복식에 있어서도 건강과 관련한 소재 개발과 패턴, 디자인 개발이 중요시 될 전망이다.



Fig. 11. Pirate look by Vivianne Westwood, 1981



Fig. 12. Wedding dress by Emanuels, 1981



Fig. 13. Mid 80's two-piece by Emanuel Ungaro, '85 S/S



Fig. 14. Late 80's bubble skirt by Karl Lagerfeld, '89 S/S



Fig. 15. Late 80's bustle two-piece by Christian Lacroix, '87 S/S



Fig. 16. 'Heroic Zone Collection' by Vivienne Westwood, '94 S/S



Fig. 17. 'Vive la Cocotte Collection' by Vivienne Westwood, '95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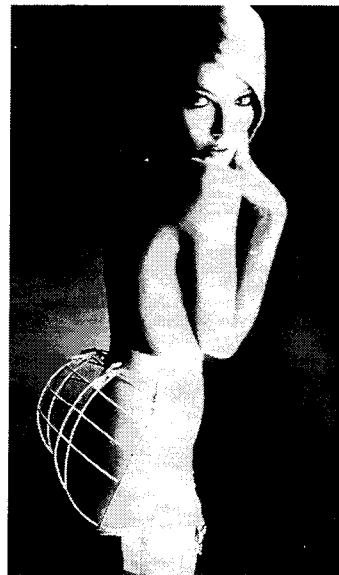


Fig. 18. Modern bustle by Vivienne Westwood, '95 A/W



Fig. 19. Givenchy by John Galliano '96 S/S



Fig. 20. Dior by John Galliano '97 S/S

IV. 세기말 복식의 특징

이상을 종합해 보면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세기말 복식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극단화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는 16세기 말의 복식과 19세기 말 20세기 말의 복식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는 버슬 스타일이 17세기 말의 복식에서부터 20세기 말의 복식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셋째는 과도한 표면장식을 들 수 있는데, 이는 16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첫째, 극단화의 경향은 복식 형태 면에서의 극단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형태의 극단적인 과장은 커다랗게 부풀린 소매와 버팀대를 넣어 거대한 스커트, 커다란 버슬(이 경우는 버팀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확장된 칼라, 바늘처럼 뾰족한 허리모양 등에서 극단화의 경향이 파악되었다.

특히 16세기 말에 나타난 극단화의 경향은 인간 중심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이 과도하게 복식에 표현된 것으로, 이순홍은 이를 자아확장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였다.(이순홍, 1996) 이는 어떤 하나의 유행이 극도에 달

했을 때 나타나는 극단화 현상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세기말이라는 사회상과 조우하면서 인체미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당시대인들의 욕구의 표현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 인체를 구속하게 되고 결국 유행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지나친 불편이 유행의 수명을 단명하게 했던 것이다.

둘째, 버슬 스타일의 지속적인 등장 혹은 복고풍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는 이미 몇몇의 버슬 스타일의 복식에 관한 연구(이정남, 1988, 구미지, 임원자, 1988)에서 다루어진 바 있는 것처럼 이미 파악되어 있는 현상이다. 17세기 말경 처음 나타난 버슬 스타일은 그 후 약 300여 년 동안 유행에서 사라지지 않고 부침을 계속하였고 19세기 말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버슬 스타일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20세기 말인 최근에 들어와서 패션에 다시 복고주의 적인 영향으로 버슬 혹은 엉덩이를 강조한 스타일이 유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세기말에는 버슬 스타일이 유행하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 파악된 바로는 세기말의 퇴폐적 사상이 신비주의 및 종말론과 결합하여 대중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 시키고, 이것이 향락주의와 에로티시즘으로 연결됨

으로서 세기말 복식에 에로틱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또한 앞서 언급한 극단화의 경향과도 관련이 있어, 미적 균형이 깨져 부담스럽게 보일 정도의 거대한 버슬과 여기에 부가된 과도한 표면장식은 여성의 인체 중에서 가장 에로틱한 부분(특히 엉덩이 부분)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으로도 사료된다.

셋째, 과도한 표면장식을 들 수 있다. 16세기는 보석을, 17세기에는 루프, 리본, 태슬을, 18세기는 레이스, 리본, 꽃을 장식요소로 사용했으며 이 표면장식 역시 버슬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16세기를 제외하고는 표면장식의 위치가 거의 뒷부분, 특히 버슬 부분에 모여있기 때문이다. 이는 버슬 즉, 에로틱 존(Erotic Zone)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데서 부가된 장식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나타난 것은 첫 번째에서 언급한 극단화의 경향이 형태 면이 아닌 표면장식의 면에서 나타난 것으로, 세기말 복식에서 파악된 이 세 가지 현상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결 론

세기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당시대인에게 다가올 세기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 지나간 세기에 대한 회의와 향수 등을 불러일으켜 종말론, 회의론, 신비주의 등이 범람하고 향락주의와 에로티시즘의 만연으로 복식도 더욱 자극적이고 에로틱하게 변화하고 급기야는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세기말 복식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극단화의 경향으로 복식 형태 면의 극단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16세기말의 복식과 19세기말, 20세기말의 복식에서 나타난 극단화의 경향은 세기말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 세기가 바뀌는 시기를 정점으로 하여 극단으로 치달아, 결국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해 유행이 바뀌게 되는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16세기말과 19세기말에 나타난 복식 형태 면의 극단화는 인체의 자세와 비례를 무너뜨릴 정도로 극심하여 이미 극단적인 형태 자체에 그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당시대의 이상적인 인체미의 구현이 세기말이라는 시대상과 조우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세기말 현상으로 보여진다.

둘째는 버슬 스타일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이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17세기말에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버슬 스타일은 18세기말과 19세기말, 20세기말까지 약 30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표현으로는 복고풍의 지속적인 등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말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세기말의 영향으로 복고주의적인 경향이 패션의 지배적인 테마가 되고 있으며, 반드시 버슬이 아닐지라도 엉덩이를 강조한 에로틱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이미 일반적인 세기말 현상에서 언급되었듯이 과거에 대한 향수와 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세기말에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과거로 눈을 돌리게 되고 동시에 지나친 향락주의, 퇴폐주의의 만연으로 복식에 있어서 에로틱한 면을 강조하게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과도한 표면장식을 들 수 있다. 이는 세기말의 에로틱 존인 버슬 혹은 엉덩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표면장식의 극단화라고도 할 수 있다. 세기말 복식에 있어서의 극단화 현상과 버슬 스타일 혹은 복고풍의 지속적인 등장, 과도한 표면장식, 이 세 가지 세기말 복식의 특징은 세기말 현상의 공통된 영향하에 긴밀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세기말 복식 현상에서 살펴본 21세기 복식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20세기말의 복식에서 추출된 두 가지 경향은 타 세기말에서와 같이 199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21세기에도 세기말에는 20세기말과 유사한 복식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는 복식에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미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도피로서 레저 활동이 붐을 이루게 되고 이에 따라 복식에 있어서도 레저복의 비중이 커질 전망이 높아 보인다. 또한 입을 수 있는 컴퓨터나 통신장비의 개발이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시작되어 있으므로 21세기에는 컴퓨터 칩이 내장된 의류나 안경, 센서가 부착된 핸드백 등이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나아가 21세기의 최대 이슈인 '지구환경문제'에 부응하는 의류소재 개발과 패턴 디자인 개발이 중요시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21세기의 복식은 양식적인 면보다는 정신과 환경 부분을 강조하게 되어, 단순히 외양적으로만 아름다운 복식이 아닌 고기능이고 첨단기술이 내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편안한 복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구미지, 임원자(1988). 버슬스타일을 중심으로 본 유행의 주기성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20:39-54.
2. 김옥진, 정명선(1986). 르네상스시대의 복장형태와 인체의 이상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논문집* 31집: 125-143.
3. 南靜(1990). *パリモードの200年 II*. 文化出版局, 東京.
4. 이상례(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걸옷화 현상. *한국복식학회지* 35:325-341.
5. 이순홍(1996). 르네상스시대의 복식 유형과 그 발생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30:275-294.
6. 이예영(1999).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세기말적 신비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7. 이정남(1988). 19세기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한 Bustle Style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8. 林泉(1999). *Wearable Computer*. *패션비즈니스학회지* Vol.2, 3-1:28-31.
9. 정홍숙(199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서울.
10. 허준(1987). *파리모드 200년*. 유럽문화사, 서울.
11. Ashelford, Jane(1996). *The Art of Dress:Clothes and Society1500-1914*. Abrams, N.Y..
12. Black, J.Anderson., Garland., Madge., 윤길순 역 (1997). *세계패션사 1., 2.* 자작아카데미, 서울.
13. Boucher, François(1965).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N. Y..
14. Bond, David 저, 정현숙 역(1992). *20세기 패션*. 경춘사, 서울.
15. Carnegy, Vicky(1990).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B. T. Batsford, London.
16. Ewing, Elizabeth(1992).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B. T. Batsford, London.
17. *Fashion Color*(1999). Spring Summer, No.60.
18. Fuchs, Edward(1958). *風俗の歴史: 世紀末の風潮*. 安田徳太郎 譯. 光文社, 東京.
19. Krell, Gene(1997). *Vivienne Westwood*. Thames and Hudson, London.
20. Laver, James(1982). *Costume and Fashion: A Concise History*. Thames and Hudson, London.
21. McDowell, Colin(1997). *GALLIANO*. Rizzoli, N. Y..
22. Payne, Blanch(1965). *History of Costume*. Harper & Row, N. Y..
23. Steele, Valerie(1997). *Fifty Years of Fashion: New Look to Now*. Yale Univ. Press, London.
24. Waugh, Norah(1968). *The Cut of Women's Clothes: 1600-1930*. Farber and Farber, London.
25. Waugh, Norah(1995). *Corsets and Crinolines*. Routledge, N. Y..